

[큐티 세미나] 풍성한 큐티 상 차리기

‘큐티 리더 누구나 할 수 있다’ 김원태 저 / 두란노

큐티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나 친구와 나누면 더 풍성해진다. 똑같은 본문이라도 사람마다 받는 은혜가 다르다. 그래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면 은혜가 배가 된다. 특별히 부부가 큐티를 나누면 더 친숙해지고 관심과 비전과 가치관이 서로 비슷해진다.

각자 20~30년 동안 다르게 살다가 갑자기 한몸이 되어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몸은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되지만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려면 성경을 통한 하나됨이 있어야 한다. 큐티를 나눌 때는 본문이 같으면 더 좋겠지만 본문이 같지 않아도 된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어떤 부분을 읽어도 상관없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케하여 서로 교제하라고 한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라고 한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해야 함을 말한다. 혼자 말씀을 보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용한 내용을 이웃과 나누면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적용하게 된다.

큐티를 나눌 때는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한다. 정직하지 않은 나눔은 영적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큐티를 나눌 때 상대방에게 설교하려고 하면 안 된다. 단순히 오늘 자신이 본문에서 얻은 교훈과 적용을 나누면 된다. 자신이 적용하려다 실패한 부분이나 자신의 약점까지 정직하게 나누면 더욱 좋다. 큐티를 나눈 후에는 반드시 서로 중보기도를 해주면 좋다. 매일 만나서 나누기 어려운 사람은 전화로 나누어도 좋다.

- ‘큐티 리더 누구나 할 수 있다’ 김원태 저 / 두란노

* 출처 : 온누리신문